



나눔터

2000 · 5

제 34호

이런 일을 합니다. 2

여기는 상담실 3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 제정 이후▶일반상담부
장애인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사업▶박미숙
KBS-2TV <여비서> 모니터▶하영란
새로 나온 책 들여다보기▶이경미

기획기사 9

을다, 웃다, 말하고, 나누고...▶기획팀
온라인 자매들에게 힘을!▶정진욱

오늘의 쟁점 13

위험한 도전, 나의 쾌락▶변혜정
참을수 없는 그들의 터프함▶전복죽

이렇게 생각한다. 17

여성공간 이야기▶전현경
이런일을 했습니다.
나눔터 게시판

주디 알케마(Judy Alkema)- '상담소 개소 9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5.31)에서 전시회를 갖는, 근친피해자이기도 한 주디는 "예술은 접근하기 쉽고, 비싸지 않아야 하며, 치유적이며 개인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 자료제공-여성신문사)

보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다들 물어봐요

개소 9주년 기념 후원의 밤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지난 9년간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던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힘으로 달려가기 위해 개소 9주년 기념행사로 후원의 밤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00.5.31(수) 6시 30분~9시
- 장소 / 대한성공회 대강당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관련 간담회

이주여성노동자 문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과 함께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간담회는 6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권리 침해 실태 및 문제점, 이주여성노동자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 및 해결을 위한 연대방안을 주제로 삼게 됩니다.

- 일시 / 2000.6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실

성평등 만들기 사이버 연속토론회

제5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4대 통신사에서 동시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문화만들기를 위한 기초토론으로 주제는 '성역할 고정화에 따른 남성역할'입니다.

- 일시 / 2000.7.1 ~ 7.7
- 토론회실 개설 ISP / 천리안, 유니텔, 넷츠고, 채널아이

육아시설 아동을 위한 성교육 캠프

서울시내 모 육아시설 아동 40여명과 함께 2박 3일 성교육캠프를 진행합니다. 모듈별 토론과 집단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00.7.19 ~ 7.21
- 장소 / 지리산캠프장

제3회 성교육·성상담 교사 연수

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는 2000년 여름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사연수는 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론 뿐 아니라 여성학적 관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0.8월 중순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실
- 대상 / 현직 중등교원, 성교육·성상담에 관심있는 분 40여명
- 신청문의 / 김언정 부장(576-7128)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 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담당 경찰관 교육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관들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신속,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서울시내 성폭력, 가정폭력 담당경찰 100여명 (50명 단위로 총2회 진행)
- 일시 / 2000.6.13 ~ 14 / 6.28 ~ 29
- 장소 /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여성의 전화와 공동주최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 제정 이후

일반상담부

“섹시해 보여, 술 한잔 따라 줘”-성희롱 처벌 “성희롱은 회사의 수치” “성희롱 막아라-기업마다 대책 비상”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조항이 신설되고, 남녀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타이틀로 기사들을 잇다투어 실었고 이 법안이 사회생활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성희롱예방을 위한 사내 내규를 마련하거나 사원들 대상의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일련의 변화들이 보여지긴 했지만 전체 사업장으로의 양적 확산과 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해내기 위해선 아직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 글에서는 98년도와 99년도 직장내 성희롱 상담 비교를 통해 두 법안의 제정, 시행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장내 성폭력 중 성희롱 상담의 분포

직장내 성폭력피해 상담의 급증은 본 상담소 99년도 상담현황에서 가장 특기할 점이었다. 98년도 전체 성폭력사건 2,085건 중 직장내 피해가 340건(16.3%)이었는데 99년도 전체 성폭력사건 2,564건 중 직장내 피해는 586건(22.8%)이었다. 이는 직장내 피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그동안 피해가 있었지만 속수무책이던 성희롱피해에 대하여 법의 시행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형	98년 건수(%)	99년 건수(%)
강간	145(42.6)	167(28.4)
강간미수	19(5.6)	25(4.3)
강제추행 ¹⁾	19(5.6)	35(6.0)
성추행, 성희롱	157(46.2)	359(61.3)
합계	340(100.0)	586(100.0)

위 분포에서 보면 강간과 강간미수 건수의 증가는 그리 높지 않으나 성추행과 성희롱 건수는 157건에서 359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체

1)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사건만을 규정

61.3%를 차지하고 있다.

2. 성희롱 상담건수의 월별 분포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성희롱(피해건수/상담건수)	44(54)	48(78)	56(74)	33(43)	47(56)	66(78)	54(67)	57(74)	47(60)	46(62)	51(56)	38(62)	586(764)
성희롱건수	23	31	42	22	34	40	32	34	28	31	22	20	359

위 분포에서 보면 성희롱 피해 상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될 즈음인 2~3월에 급증하였고,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6~8 월경에 다시 증가하였다.

3.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피해양상은 98년도와 거의 비슷하며 모든 유형에서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언어적 피해가 특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98년 건수(%)	99년 건수(%)
육체적	101(64.3)	167(46.5)
언어적	41(26.1)	136(37.9)
시각적	3(1.9)	24(6.7)
성적봉사요구	10(6.4)	23(6.4)
기타	2(1.3)	9(2.5)
합계	157(100.0)	359(100.0)

육체적 행위로는 손이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입맞춤,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호소되었는데 육체적 접촉에 대해 내담자들이 성추행과 성희롱 두 가지 용어로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어적 행위로는 음담패설이나 성행위 묘사, 창녀처럼 입었다, 다이어트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등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개인적 성관계 경험을 묻고 휴대폰 여자라고 소문을 내는 등 성적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데려다 줄 테니 뽀뽀해달라, 술 먹으러 가자며 괴롭히는 등 성적 관계를 강요, 회유하는 말 등이 나타났다



다. 시각적 행위로는 포르노 테이프를 의도적으로 선물한다거나 근무 중 PC로 음란물을 보고 있거나 통신으로 음란물을 보내오는 것, 성기 부분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자위를 하는 것, 화장실·탈의실에서 엿보는 행동 등이 나타났다. 성적봉사를 요구하는 행위로는 안마해달라, 음식을 먹여달라, 옆에 앉아 술 따라라, 부르스 추자, 바이어를 접대해라, 출장중 방을 하나만 잡자 등이 있었고 위의 네 가지 유형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4.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99년도 상담을 분석하여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종, 관계 등으로 살펴본 피해자, 가해자의 특성은 98년도 분석과 거의 비슷하다.

성별 : 여성피해자가 342건(95.3%) 남성피해자는 17건(4.7%)으로 나타났는데 98년 여성 151건 (96.2%), 남성피해 6건 (3.8%) 여성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모두 남성인데 비해 남성피해는 남자상사가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그 외 다수의 여성이 연하의 남직원에게 노골적 성적 농담을 하거나 여성상사가 생리대 심부름을 시켜 남자부하직원이 수치심을 느낀 사례 등이 있었다.

연령과 결혼상태 및 관계 : 피해자의 85% 이상이 20대 미혼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30, 40대 기혼여성(14.7%), 50대 여성도 보여진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상사, 고용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동료, 고객, 거래처 직원, 기타(고용주의 친구 등)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연령은 30, 40대 이상 기혼이 가장 많고, 50~70대 기혼, 동료로 20대 미혼이 간혹 보여졌다.

직종과 관계 : 피해자는 20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무직이 대부분이고 보험·건강식품·의류·화장품 판매직, 식당·다방종업원·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교사·간호사·프로그래머·조교·강사·임상병리사·미용사·모델·가수 등 전문직, 이외에도 소방대원, 공무원, 청원경찰, 청소년 등도 보여졌다. 공공근로나 부업·아르바이트 등 임시계약직 여성들의 경우 피해시 직장내 공식적 문제제기가 어려운 이유로 그 피해가 더욱 주목된다. 가해자의 경우 사무관리직(과장, 부장, 팀장 등)이 가장 많고 공무원, 학원원장, 전문기술직(법무사, 설계사, 의사, 조리사, 의료기사, 디자이너 등), 프로듀서, 음반사 사장, 청소용역회사 관리직 등으로 나타나 성희롱이 어느 특정한 직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5. 성희롱이 일어난 사업장 규모와 상황적 특성

사업장 규모 : 대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서둘러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상담실 설치 등을 하고 있고 여직원회, 노조 등의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러나 5인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해자가 고용주이거나 고용주와 밀착관계인 경우가 많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인 이상이라 해도 직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여직원의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피해시기 및 장소 : 대부분의 직장내 성희롱은 일상업무가 진행되는 근무시간, 근무공간내에서 일어나며 그 외 회식장소, 회식후 데려다주는 차안, 출장 중 숙박업소, 야유회, MT, 집들이 등의 외부장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시기 및 지속여부, 다른 피해자 유무, 피해후 상담까지의 소요기간 : 성희롱 발생은 구직 과정, 면접시, 입사 첫날, 입사 후 1개월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해자는 다수 혹은 모든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상담은 피해 직후나 피해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1년 이후의 상담은 4건 뿐이었다.

피해시 반응 및 피해후의 조치 : 법 제정 이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인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를 표현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물리적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너무 당황스럽고 무안하여 회피, 무시하거나 속수무책으로 참은 경우도 상당히 보였다.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로는 불쾌, 당황, 무안, 자존심 상함, 억울함, 분노, 업무집중도 저하,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등이 보여졌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가해행위증지, 사과, 부서 전환, 퇴사, 법적 처벌 등을 원했고 피해로 인해 자신이 직장생활하는데 부정적 영향, 불이익을 받는 등의 이중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혼자서 고민하다가 동료, 친구, 가족에게 의논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상급자에게 하소연하여 조치를 부탁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제기, 해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표를 내는 경우, 고소나 노동위원회·여성특위에 시정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지원 및 결과 : 피해 후 대책을 문의하거나 처리과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상담에서는 일차적으로 가해자에게 단호한 거부와 항의표시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래도 안되면 사용주나 상급자에게 회사내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여성특위나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그 중 면접 지속상담으로 이끌어 지원한 사례나 법적 지원한 사례에서는 특기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예 : 방문학습지도교사에게 관리자가 성희롱 반복 → 본사에 진정하여 가해자 파직 / 금융기관 이사장이 3명의 직원에게 습관적 성희롱 → 업무상 추행으로 고소당하여 1심 재판 전에 합의 / 범무사가 직원에게 근무중 성기그림과 음란한 말을 적어보냄 → 2심 재판 중 / 성희롱을 일삼은 상사 →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와 각서를 받음). 반면 일회상담의 단순문의인 경우 추후 사건진행경과나 처리결과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가해자, 사용자 측의 태도 : 가해자 측에서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성의없는 의례적 사과에 머무는 경우, 친구나 가족이 알게되어 가해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폭행을 해서 오히려 협박으로 몰아 고소를 해온 경우도 있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상담소에 항의를 해오거나 가해자 부인이 사건처리문제로 상담을 청해오기도 했다. 가해자가 고용주인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계속 무시되고 더 심하게 가해행위를 반복하기도 하며 오히려 거부 의사에 대한 불쾌한 반응(잘났다,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해볼테면 해봐라 등)을 보이기도 했다. 업무상 불이익(트집을 잡거나 일을 그만두라고 함)을 주거나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월급 일부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도둑으로 몰아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내용에서 나타난 시책, 관리자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종용, 조치를 미루고 투서자를 오히려 무고라고 비난, 피해자의 퇴사를 종용, 회사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형사고소를 권유하는 등 해결에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사내에서 조정·처리하려 노력하는 경우, 가해자 퇴사·부서 전환 등의 강력한 조치, 직원대상 예방교육 실시를 약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여직원들이 예전과는 달리 매우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명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데 관리자측 의견이다.

예방 측면 : 법제정시 엄청난 반항과는 달리 상담내용을 보면 사용

주나 회사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대다수 소규모 직장에서는 관련자료 비치 정도로 교육을 대치하면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시 참여하는 남직원이나 관리자들은 “한 번 이런 문제에 연루되었다가는 아무리 해명해보아도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가해자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되었다”는 의견과 “상대방의 주관에 따라 피해로 인식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6. 법 제정 이후 상담현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거의 모든 상담에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기관이나 여성특위에 직접 시정신청을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²⁾ 이는 신청, 시행절차에 대한 부담, 신고후 고용주의 미온적 조치나 보복, 불이익에 대한 불안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상담시 법의 시행절차와 적극적 대응의 의의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피해자를 대신한 신고서 작성, 접수 등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의지가 없으면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상담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마찬가지로 직장내 성희롱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사용주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비해 직장내 공간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법적 처리를 하도록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도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로 간주, 이에 대해 사용자 가 경제적 배상책임을 지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건발생 후의 해결뿐 아니라 성희롱 예방과 올바른 인식 확보에 법 제정의 큰 의의가 있으므로 성희롱예방교육이 형식적, 의례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과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은 꾸준히 힘써야 할 과제이다.



2) 99년 12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남녀차별사항 접수처리현황에서 성희롱 건수는 152건 접수에 조정 1건(의료행위 중의 성희롱사건 : 공직사과와 50만원 배상)과 합의 1건(직장동료 1년 이상 성희롱 사건 : 조사중 사과, 재발시 인사조치 약속), 노동부 이송이 1건, 해당 건이 아니라고 안내회신한 경우가 6건, 처리 중이 6건이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박미숙 (前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장애인의 성’에 대해 비장애인이 갖고있는 통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애인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할 것이며, 성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더 성적이거나 하는 통념들, 또는 성교육이 장애 아동에게 성적 욕구와 성적 실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인 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신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불임수술이 일부 시설이나 부모들에 의해 자행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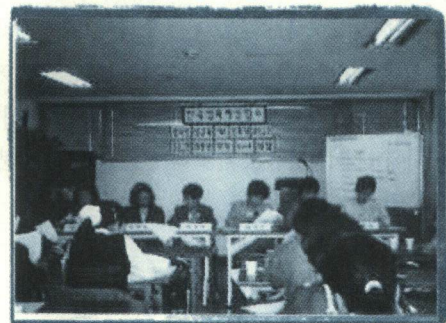
성이란 모든 인간에게 존속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에 관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인간생활에 있어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인식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여 출생이후에 성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에 성은 인간행동의 동인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하고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은 장애의 건전한 생활인을 만들어 주는데 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판단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장애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외부 환경과 차단된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텔레비전, 비디오 매체는 이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사춘기 장애인들에게 텔레비전 오락물, 광고물 등은 매우 자극적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장애인의 성적 욕구는 자신들의 표현능력의 부족이나 욕구를 관철시킬 능력의 부족으로 성적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난폭행동이나 이상성격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범죄의 경향을 띠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조성과 교육을 통해 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부모나 교사들은 당면한 다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가 쉬워 정작 성교육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또

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없는 실정이고, 그에 대한 연구 자체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업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체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교사나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상담소에서는 2000년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특수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검증한 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사·사회복지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의 첫 단계로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3월 29일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장애인관련단체·특수학교 교사·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성교육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특수학교의 성교육 실태, 장애인 성폭력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되어지는 정신지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기로 하였고,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5월 17일 1차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된 내용은 프로그램 수정, 보완에 반영될 것이고 이후 2차(6월), 3차(7월)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이 확정될 예정이다.





KBS-2TV <여비서> 모니터

하영란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자원활동가)

아래 글은 본 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TV 모니터팀이 지난 4월 9일 KBS 1TV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의 'TV 속으로'에서 방영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 한국 드라마의 현실

드라마는 다양한 계층의 생활감정과 의지와 삶을 표현하며 현실의 삶을 근거로 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청자는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삶의 회로에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TV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다룬 것은 찾아보기 힘들며, 설혹 있다하더라도 시청률을 의식해 통속적, 감상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여성시청자를 겨냥한, 한국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는 멜로드라마, 홈드라마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상당히 왜곡돼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보편적 진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물론 드라마가 늘 진지하고 심각할 필요는 없으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재미' 있는 요소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균형과 다양성에 있다. 시청률에 얽매어 자극요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단막 시트리에이션 드라마 <여비서>에 대하여

KBS 2TV 주말 드라마 <여비서>(황인뢰 연출)는 멜로드라마류의 연속극과 차별성 있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주 1회 방송으로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정된 인물 외에 매회 특별출연 인물들을 등장시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단막극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의 독특한 캐릭터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고 부담스런 이야기 진행으로 단막 시트리에이션의 매력을 살리지 못하였다.

내용상으로 대기업을 배경으로 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야기 중심의 여느 드라마들과는 차별되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영된 분을 살펴보면 전문비즈니스를 다루기보다는 젊은 여비서들과 직장인들간의 일상적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드라마 <여비서>에 나타난 여성상 분석

21세기는 여성이 지닌 감성과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리며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만족을 찾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드라마, 특히 직업여성들을 보여주었던 드라마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에 의해서가 아닌 성차별적 시각으로서 그 여성을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여비서>는 제목에서부터 성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분업적인 직업관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한정,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드라마는 남성중심의 기업에서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오유경을 중심인물로 설정, 부각시킨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길 요구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해내길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가부장적 시각에서 볼 때 부담스럽거나 깔끄럽다고 여겨지는 캐릭터들은 이 드라마에서조차 부정적으로 묘사되며 주변인물화된다.

■ 결론

드라마 <여비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여성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시각으로 진취적인 여성들을 은연중에 비하하고 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여비서>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획의도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거나 강화시키는 것 밖에 안되었다.

위에서 본 모니터팀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드라마의 여성상 왜곡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여성의 삶, 전문여성의 모습 등을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선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 단순한 비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매체비평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의 주요 시청층이 여성인 만큼 제작자의 여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절실하다. 기획에서 제작까지 대부분 가부장적 시각에 의해 진행되는 현실을 볼 때 다양한 여성의 삶을 공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勇氣

아주 특별한 용기를 권함

이경미 (前 성폭력문제연구소 연구원,

현재는 지리산 맑은 공기를 쐬며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중에 몇 번은 정신 번쩍 드는 성장에의 계기를 만나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긴 기쁨 끝의 단비 같은 귀중한 것임에 감탄하곤 한다.

이 책은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고마움 중에 제일 큰 것은 세상을, 인간을, 생명을 위대한 그 무엇으로 인정하도록 만든 힘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린이, 정신지체인, 어떤 상황에서도 착하고 순종하도록 키워진 사람들, 즉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기방어력이 없는 이들로써 공격당하기 쉬운 여진 속에 놓여있다. 사건이 제대로 풀리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책임전가가 횡행하고, 피해자는 자신을 책망하고 포기하는 쳇바퀴가 계속되면 세상이 희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곳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그런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들의 군상이 다들 그렇고 그런 정도로 하찮아 보일 때도 있다. 그 안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한 채로 우두커니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역시 절망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골 깊은 우여곡절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끝끝내 인간은 성장에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그 성장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 잘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들 속속들이 건강한 총체성으로 향하는 생명력이 항존한다는 것,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은 역설한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에서는 피해자(이 책에서는 '생존자'라 명한다. 이는 피해자 관점에서 재발굴된 용어로서 이미 미국에서는 익숙한 용어이다)가 후유증을 모면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생존방식이기도 한 대처 방법이 자기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살아오면서 그만한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 치유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2부 [치유과정]은 워크숍에 참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된 험난한 경로이다. 이 부분은 자신에 대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여 얻은 후유증이 줄줄이 엮여 나타나는 고약한 증세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도에 해당된다. 피해자들이 각각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치는지, 왜 거쳐야만 되는지,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서두르거나 멈추지 않은 채 꼼꼼하게 성찰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결국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깊은 변화를 불러온다. 3부(변화는 이렇게 온다)는 자신과 자기 삶을 구성하는 각 영역들-자기개념, 감정, 몸, 친밀한 관계, 성, 부모역할, 원가족에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서술방식이 아닌 대목이 없고 성찰적인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페이지가 없다. 이는 4부 [생존자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하여] 편에서도 적용된다. 가족, 연인이나 배우자, 상담원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해야할 태도와 자세를 제시한다.

이 책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 연관된 독자만을 향해 권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성폭력 자체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특정한 후유증과 그에 따른 대처방식과 행동패턴, 자기과제가 있다. 그리하여 다른 형태의 고난이 훑고 지나간 흔적과는 구별된다. 그걸 잘 파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잘 도울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는다. 그러나 독자가 그 누가 되었든 인간의 내면과 삶에 대한 통찰, 총체성을 향한 확신이 든든하게 자리잡는다면 어떤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가는 강한 힘을 이미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여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또 이들을 이해하고 한 편이 되어줄 이들에게 충분히 권할 만하다.



울다, 웃다, 말하고, 나누고...

피해자 죄담회 (2000. 3. 24)

나눔터 기획팀

신영(26. 가명. 반백수에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제작년 특수강도강간피해를 입었어. 가해자가 상습범이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 안하거나, 강도로 신고하거나 도중에 합의. 나는 끝까지 재판을 했구 가해자는 8년선고 받았어.

다른 하나는 대학교 3학년때 데이트 강간피해.

현주(27. 가명. 대학원생. 가명으로 하는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 얘길 좀 천천히 하고 싶어서야.)

초등학교 3~4학년때까지 오빠한테 성추행. 이후 친부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강간. 임신중절. 가출실패를 통해 가족에게 알려졌어. 겨우 탈출해서 신고했구 친부는 7년형을 받았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상담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내 경험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도 싶구.

순옥(26. 만화. 그림 그리고 싶어)

오빠, 삼촌, 동네아저씨들에게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삽입을 제외한 성추행 경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드문드문 떠올라. 성폭력 강의 들으면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스스로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피해를 기억해내고 치유하고 있어. 현재는 그 과정이 버거워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구.

<피해이후 주변인에게 말하기. 그리고...>

순옥 : 어릴적 부터 시작된 피해는 워낙 스스로도 내성이 돼서 자신도 성관계인지 성폭력인지 구분이 안돼는거 같애. 나는 맞으면서 당한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주변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지.

대학교 때 그 일을 기억하고 나선 성폭력강의를 한 강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제일 큰 효과는 자기를 인정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 듯.

신영 : 피해 당했을 때 주변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 처음엔 얘기하면서 실수 많이 하고 사람들 반응 보면서 상처도 받고. 피해경험을 주위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애. 내 동생도 내 얘기 듣고 자기의 성추행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자기도 당당해져도 되나보다.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현주 :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았던 거 같애. 처음엔 아주 친한 친구한테만 영영 울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로워졌던 거 같애. 친해지고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길 바라는 단계가 되면 온전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애. 그리고 제일 좋게 생각되는 관계는 나만 얘기를 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도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인 거 같애. 요즘은 그런 상호작용이 되는 관계가 생겨서 좋아.

<치유작업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순옥 : 치유를 해야한다고 생각 못했어. 성폭력이란게 그냥 그 당시 몸에 일어난 공격,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야. 그 때 상담소에서 강의 나온 사람이 공격적인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후유증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 그 말이 내 문제를 해석, 해결해나가는 코드가 된거 같애. 기억이 붓물처럼 터지면서 '풀고싶다. 이 미궁을 풀고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

집단상담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화가 났던 부분이 있어. 성폭력피해를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화를 못내거나, 성관계를 원하는지 판단 못하는 거 등등 후유증이 있는데 그런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 같애. 나는 피해경험 때문에 남자에 대해 공격적인 건 당연한 거 같애. 정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거지. 근데 이런 걸 피해의식이라고

기획하나 ▶ 울다, 웃다, 말하고, 나누고...

얘기할 때는... 그리고 피해자를 집단으로 만나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난 이미 배설 단계를 거쳤고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됐던거 같애. 치유단계별로 그룹핑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진 이런 집단모임조차 많지 않으니까...

순옥 : 상담의 주체는 피해자라고 생각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몫인데. 상담원들이 혹시라도 권위적이거나 피해자와 지나치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별로 안좋아. 상담원들이 상담한다는 것에 대한 철학공부가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애. 주체가 누구인가... 피해자가 주체라고 말을 해.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 피해경험이 있는 상담원이었으면 좋겠구.

신영 : 정말 나도 동감이야. 여성주의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잣대가 개입되기 마련인데 이미 자신의 잣대가 기존사회로 기울어져 있다면 내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주 : 개인, 집단상담을 받았었는데 난 그때 참 좋은 경험이었어. 피해자체에 대해 토해내는 경험뿐 아니라 당시 나를 둘러싼 여러현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물어대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끼거나 자신과 회복단계가 달라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틀림없이 있을꺼는 같애. 근데 내 경우엔 울음이 나한테 많이 힘이 돼. 이번주도 거의 매일 울었어. 자조집단 모임들 있을 때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게 보여도 나는 절대 그 상태로 계속 갈꺼라고는 생각안해. 다만 그 배설의 단계가 꼭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다보면 그 단계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랬으면 좋겠어...〉

순옥 : 좀 창조적인 상담방법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분노표출도 치면서 울게 하는게 아니라 방법도 좀 다양하게, 한서린 분위기가 아니라 재미있게 축제처럼. 그리고 피해후의 지속되는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느낌, 후유증같은 걸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해. 집단을 계속 꾸려나가고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상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거 있을 수 있잖아. 피해후 남편과 애인과 섹스

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모임 같은거.

신영 : 데이트 강간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데이트강간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여성학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거 같애. 자기 스스로 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후유증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까진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되었던걸까?

현주, 신영 : 아직 자조집단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많은 개인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니가 힘이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 사람에 따라선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유형별, 단계별로 많은 집단이 형성됐으면 좋겠어.

현주 : 오늘 나온 얘기중에 힘이 되고 좋았던 거는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 나는 정말 그렇게 일하고 싶거든. 특히 근친 성폭력쪽으로. 그리고 내 모습이 피해를 입은 애들한테 힘이 되고 역할모델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순옥 : 좋은 미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남자거나 남자들 시선에 익숙한, 그것도 소수의 여자들이니까 그 시각에서 보면 섹스가 있는 장면은 더러워. 더럽게 표현돼. 근데 여성영화제 같은 데서 여성감독들이 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섹스가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 피해자이든 아니든 섹스가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무리는 아니야. 상담소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 자료말고도 성에 대한 긍정적, 대안적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신영 : 남자들은 포르노안에 나오는 여자, 자기 여자친구, 데이트 상대를 모두 동일시하는 거 같애. 그런거 보면 정말 좋은 미디어가 너무 필요해.

현주 : 좋아하는 사람하고 키스할 기회가 있었어. 잘 몰랐는데 내가 이를 꼭 다물고 있었다. 아빠한테 강제로 당하던 기억때문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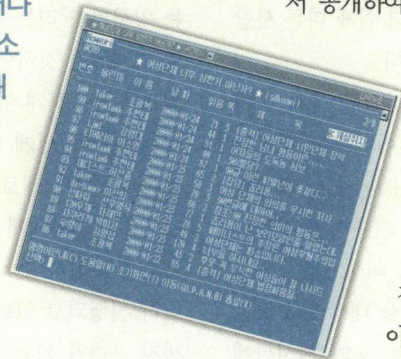


온라인 자매들에게 힘을!

정진욱 (前 정보사업부 부장)

회교근본주의자들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지금도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교육도 받을 수 없다.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 남성과 함께만이 나갈 수 있다. 여성들은 집밖에서는 'burqa' -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뒤덮히고 눈부분만 창살모양으로 되어 있는 옷 - 라고 불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여성들이 사는 집의 창문은 없애거나 유리창을 검게 칠해야 한다. 여성들은 소리가 나는 신발을 신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남성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을 동반하고) 물건을 사야 한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낼 수 없다. 왜냐하면 낮은 남성이므로. 또한 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 수도 없다. 손이 보이니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나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단지 허울뿐인 권익과 평등으로 포장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성들의 그 '권익'과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일반 남성들이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작은 소리라도 문제제기를 해 보라.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벌떡처럼 달려들어 여성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제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사이버공간의 남성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단련된 공격성과 결집력으로 순식간에 사이버공간의 토론실을 장악하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주의 커뮤니티와 여성단체 게시판들을 옥쇄와 비아냥거림, 강간에 대한 협박으로 폐쇄시켰다. 그들은 온 통신공간을 뒤져 군가산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공개하여 '페미파쇼', '여성우월주의자' 들로부터 남성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그들을 공격하도록 동료남성들을 선동했으며, 또한 사이버테러단을 조직하여 오프라인에서 교대로 협박전화를 걸어대는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군가산제 폐지에 찬성하는 글을 올리거나 서명하는 여성들은 당장 극렬 페미니스트로 오인되고, 수없이 쏟아지는 '*#년', '여성단체년들과 똑같은...', '정신대 보내서 죽도록 당해야...', '밤길 조심해라' 등의 옥쇄와 협박을 감당해야 하고, 자신들의 신상이 추적되고 공개되어 남성들의 분노의 공개적인 표적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폭행과 강간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유의 신속성, 익명성이라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등의 사이버공간의 장점은 여성을 협박하고 공격하는데 훌륭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은 그 공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겨우 30%를 오 르내리던 여성들은 남성들의 테러를 피하기 위해 여성임을 숨기거나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불과 한두 달만에 남



성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이 짧은 전쟁은 사이버공간은 철저하게 남성들의 공간이라는 것, 여성들은 리본달린 분홍치마를 입고 있을 때만이 그 남성들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환영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아님을 확 인식시켜주었다.

사이버공간의 성별(gender)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는 이번 군가산제 건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사이버공간내의 여성 이용자 개개인들과 여성모임들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성희롱에 시달려왔다. 30%밖에 안되는 여성이용자들은 어느 커뮤니티에서나 항상 남성이용자들의 관심거리가 되며, 사이버공간에 접속해 있는 한 어디에서나 -대화방(혹은 IRC)에서, 메신저(memo 혹은 ICQ)를 통해, 게시판에서- 성희롱에 노출될 수 있다.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성폭력의 공통점은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며 다른 점은 현실공간에서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성희롱을 시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거의) 보장되는 비대면이라는 점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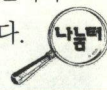
또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폭력 유형 중 하나는 사이버스토킹이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쪽지기능과 같은 instant messenger나 e-mail,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인데 토론실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또 자기의 성적 지분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올려¹⁾ 다른 남성들로 하여금 그 여성을 지분거리도록 선동하여 상대여성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물리적 폭력의 위협에 직면하도록 한다. 또 아직까지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없으나 미국의 한 보고서²⁾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피해여성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사이버스토킹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이 쉽게 행해지는 것은 가해자들이 베일속에 숨어서 자판 몇 개만 두드리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사이버성폭력에 들이는 노력은 이처럼 미미한 것이지만 단 한번의 성희롱이라도 많은 피해여성들은 상당한 분노와 모멸감, 컴퓨터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사과받기를 원하거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상당수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일선경찰 등 사법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매우 경미한 문제로 치부되거나³⁾ 인터넷 전문가의 부족으로 사건자체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형편이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공간의 가부장제 사회,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의한 여성억압, 성폭력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단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대응책과 함께 여성친화적인 인터넷환경 구축, 여성정보화와 다양한 여성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한 세력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소와 같은 NGO들이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사이버공간으로 진입해서 평등한 성문화 운동을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인터넷 정책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단순한 경제논리하에 근대화과정에서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시 사람과 문화가 소외된 채 기업중심으로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의 사이버공간에는 우리를 좀더 인간답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는 없고 쇼핑몰과 주식거래로 네티즌들을 현혹시키는 '자본'만이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또 늦기전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을 인터넷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평등과 자유를 더 발전시켜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도 인간'임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피 흘리며 싸워온 긴 싸움을 사이버공간에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1) 가해자들은 피해여성을 사칭하고 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음란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리는데 그 후 피해여성들은 거의 30초 간격으로 걸려오는 남성들의 전화에 시달려야 하며 현실공간에서 강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한 가해자는 피해여성의 이름으로 '힘센 남자만!!! 난 신입생이고... 취미는 섹스... 힘센 남자와 멋진 장소에서 하는게 꿈이지...관심있는 남자들은 전화해줘.... XXX-XXXX' 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한 남성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올렸다. "신촌에 잘 가는 모텔이 있어. 연락줘. 배 좀 맞춰보게. 팁도 많이 줄게."
2) 1999 REPORT ON CYBERSTALKING -A Report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 August
3)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컴퓨터를 끄면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집까지 쫓아와서 당신에게 실제로 해를 입히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위험한 도전, 나의 쾌락

변혜정 (본 상담소 자문위원, 성공회 대학교 강사)

솔직히 서갑숙씨가 자신의 성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나보다.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자신의 성경험을 드러내고 싶을까?' 부터 막말로 '서갑숙이 돈을 벌려고 별 짓을 다 팔아먹네' 라는 비하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런데 '서갑숙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녀의 자유지만(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또는 그녀는 정숙하지 않는 그렇고 그런 여자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정도의 냉소적으로 그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는 (윗분들의) 판단으로 그녀는 <학교>라는 드라마의 출연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그녀의 책은 비닐포장되어서 판매대에 올랐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른들의 배려로 그 정도는 (여성의 성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들이 많았다. 물론 여성의 성적 억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주의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 스러웠다. 그런데 이러한 당혹감이 영화 '거짓말'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났다.

'거짓말'의 남녀간의 사랑법이 포르노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성주의 입장에서 반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적 위계구조를 파괴한 또 다른 이미지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논쟁거리였다. 많은 경우 가학·피학의 폭력적인 '거짓말' 같은 영화는 여성주의자들이 혐오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고려해 볼 때, 영화 거짓말은 반포르노 입장처럼(청소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여성단체들이 혐오, 비판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여성영화를 주장해도)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과 여성단체 이하 여성운동을 하는 자들의 그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분화되어 나타난다고 말하곤 한다. 텍스트의 다양한 내용을 해석하는 코드가 개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관점에 따라 다양할 것임에도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비판하면서 이 글에서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진행되는 맥락을 고민하고 싶다. 위의 상황들은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 글에서 짚어보고 싶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성담론의 홍수를 어떻게 읽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요즘의 성담론이 진실로 급진적인 성정치의 지형도인가? 또한 그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소비되는가? 무엇을 위한 소비이며 누구를 위한 성담론인가 라는 말이다. 혹시 부부간의 성, 혼전의 성... 등의 '이성에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여성의 성에 대한 폭증하는 담론 속에서 성적인 주체로서 여성은 또 다시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여성을 위시하여 비가시화된 힘없는 사람들의 성적인 권리가 주장되는 것 같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성을 이야기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의 성, 노인의 성, 동성애자의 성, (혼외관계에 있는)기혼여성의 성 등등. 그러나 위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내용은 다르지만) 도덕적인 성규범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성적위계에 도전하고 있다. 동시에 규범적인 여성의 정체성에 탄지를 걸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급진적인 담론의 하나로서 여성들간의 성 경험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그럼에도 여성, 여성주의자들을 당혹하게 내지는 불쾌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서갑숙과 거짓말의 수용정도는 각 개인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다르며 그 비판 지점도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인 억압은 도덕적으로 볼 때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인 것'이 공론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의 성담론에 기대어)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여성만이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여성의 성적인 억압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등, 정의라는 근대적 개념 아래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자들은 여성의 성적인 억압-성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위치, 성적으로 대상화·상품화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아니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분노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상품화해서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포르노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짓말은 포르노스럽고 여성에 대한 거짓말(어떤 여성도 그런 새도매조지증적인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난번 나눔터 33호에서 김효선은 강조한 바 있다.)이라고 했다. 필자는 거짓말이 포르노인지 아닌지의 논쟁보다 영화 거짓말이 여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서갑숙이 예외적인 여자인가를 묻고 싶다.

만약 거짓말의 Y의 행위들이 여성에 대한 거짓말 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면, 서갑숙이 한 명의 이상한 여성일 수도 있지만 숨어있는 또 다른 서갑숙이 있다면.....여성들의 성경험에 대해 우리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나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권력집단들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여성의 성적 억압을 걱정하는 자들도 도덕적인 성규범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한된 상황에서나마 행위자로서 여성이 쾌락을 찾는 경험을 정치화하거나 거짓말 같은 영화를 여성주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여성의 쾌락의 정치화보다는 여성의 억압에 대한 현실 구조의 물리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사안처럼 생각되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사건에의 개입이 여성주의자들에게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일지도 모

른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성이나 건강한 성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아름다운 성이나 건강한 성이 여성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인지 건강한 성인지 묻고 싶다. 또 여성과 청소년을 성적존재로 위치시키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위에 존재하는 많은 입장들 중에서 특정입장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거기에서 배제되고 또한 무엇인가를 얻으려하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성적인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상황 속에서 협상,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심한 포르노도 본 청소년들에게 서갑숙 책의 비밀포장은 어른들의 위선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며 거짓말의 여고생인 Y의 정체를 감춘 것은 어른들의 또 다른 거짓말일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는 당연한 어른들의 목소리로 인정할 수도 있다. 또 여성들에게 서갑숙이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매정한 어머니로서) 심하다고 보일 수도 있으며, 영화 거짓말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전혀 재미없을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을 다양한 성적주체로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성 문제는 거짓말투성인 것 같다.

여성과 청소년이 성적인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두 사건의 맥락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거짓말 영화가 문제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여성학 텍스트에서 다시 읽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성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킨다. 그녀들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특정한 규칙과 규범들이 작동하는 의미의 체계를 문제삼는다. 이것은 여성주의자나 비여성주의자에게 모두 위협한 도전일 수 있으나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그들의 터프함

전복죽 (오훗! 납담한 전복죽!은

가부장제에 냉담한 시선을 보내며 호시탐탐 전복기회를 노리는 여성주의 만화비평도입이다.)

이정현이 앙증맞은 목소리로 '잘자~ 내꿈꿔~'를 외치는 동안 최민수는 말한다. 네 꿈은 내가 꾸다 어머니! 오빠(혹은 아저씨)! 참 터프하시군요! 아직도 터프가이가 먹히는지 광고에서 할아버지들이 힘 과시를 한다. 'Every man wants to be a macho macho man. ~ Macho, macho man'

새천년이 되긴 된 모양인데... 변한 게 없네~

만화? 같은 여자가 그리는 순정만화라면 속편할까? 별반 다르진 않다. 순정만화 죽들이 꽃미남 왕자들이야 말 안해도 알겠지만, 말없이 분위기 잡으며 여자의 의사는 개무시하는 박력을 보여주는 왕터프가이도 수두룩하다.

〈이씨네집 이야기 : 황미나 작〉

이씨네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남자인 게 큰 벼슬인,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다. 그 집 가장이란 사람은 소리만 지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는 사람이고, 큰아들이라는 인간은 어찌다 한번 부인 기분 맞춰주는 걸로 제 할 도리 다한 자상한 남편이란다. 둘째는 맞벌이하는 아내 눈치보느라 소심해진 남자들을 대변하며 아들에게 지껄인다 '불쌍한 것. 차라리 딸로 태어나지...'. 이 배 부를대로 배부른 이씨네집 마초들의 정점은 셋째다. 오오! 세상에나! 아직도 이렇게 터프하고 박력 있는 남자가 남아있다니! 말세다. -:;

이씨네집 셋째 아들, 이세민. 특별히 능력있는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의없고 지저분하기만 한 그가 연애를 잘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작가는 '터프가이니까'라고 답을 하려나

보다. 그를 터프가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다? 터프가이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별로 잘생기지도, 근육질도,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 하지만 진정한 터프가이의 여부는 여자 앞에서 증명된다. 실제로는 한없이 약할지라도 여자 앞에서만은 강한 자신을 과시한다.

CF감독 이세민의 그 근성은 모델 황민화를 만나서 진면목을 발휘한다. 도도하고 한 성질하며 안하무인이기까지 한 황민화와 이세민이 가까워지게 되는 방식은 전형적이게도 싸움이다. 할리퀸류의 로맨스 소설 도입부를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세민과 황민화의 집요한 말다툼도 결국 이세민의 갑작스럽고 저돌적인 키스로 마무리된다. 그 상황에서 그녀가 처음엔 좀 놀라다가 별 저항없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키스를 받아들인다는 건 터프가이에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거다. 바다에 빠진 황민화를 구하려다 장난인 걸 알게 된 후의 이세민의 행동은 그의 과격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역시나 식상하게도 그녀의 뺨을 때린 후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외쳐댄다. '너는 장난으로 하는 행동에 난 심장이 터져!' 터프가이에겐 함부로 장난을 쳐선 안된달까... 씩.

이런 터프가이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등장한다. 시대배경이건 공간배경이건 터프가이가 뚫고 가지 못할 길은 없다. 어디든 얼굴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성격 또한 다르게 등장하지만 지루할만큼 일관되게 과장된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뜬금 없이 여자에게 키스를 한다거나 맥락 없이 여자의 뺨을 때리고선 사랑합네를 외치는 산발적인 행동, 싫다는 사람 끌어다 섹스를 하곤 혼자 사랑에 빠지는 새디즘적 증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자신의 티프함을 자랑하며 독자들을 우롱한다는 것이다. 남자주인공의 그런 성격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전개

〈에스할름 스토리 : 지혜안 작〉

에스할름이라는 중세시대의 영지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간단하다. 에스할름의 잘생기고 공정한 영주가 농노여자에게 빠져 강간을 하고 결국엔 그녀의 사랑을 얻는다. 물론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건 편협한 자의 못돼먹은 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에스할름의 영주인 루트에게 있어서(정확히는 작가에게 있어서) 사랑, 특히 섹스라는 것은 강간신화의 확인일 뿐이다. 결혼이 약속되어 있던 농노 이본느를 보고 첫눈에 반한 루트가 그녀에게 다가간 방식은 '초야권'이라는 영주의 권력남용 내지는 횡포이다. 초야권이 가능했던 시대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선 그다지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작품 전체가 그에 걸맞는 시대고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초야권은 주인공 남성의 권력적 마초성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장치로밖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본느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동네 남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등 제2의 강간을 당하게 되니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고발성 농후한 훌륭한 작품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에 루트는 결혼으로 그녀를 건져냄과 동시에, 끝간데 없는 애정을 누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성적 접촉을 이끌어내어 결국 그녀를 감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만다. 자신을 강간한 강한 남성에게 결국엔 매료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헤피엔딩의 러브스토리라고 하고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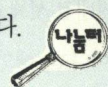
늘 그렇듯이 이 무지하게 티프한 남자 루트는 여성의 의사를 무시할 줄 알고, 상대를 힘으로 누를 줄 알며, 권력을 이용할 줄도 안다. 그는 섹스도, 함께 있는 것도 싫다는 이본느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너는 남자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면 더욱 잡고 싶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만 루트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게끔 만드는 것은, 그리고 이본느가 그에게 마음을 돌렸을 때 안도하게 하는 것은 그가 사실은 매우 멋지구리한 사람이며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절체절명의 '진리'이다.

남성성의 상징인 무대뽀 정신, '하면 된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일방적 발상은 만화 속에서도 낭만적 사랑이라는 기교를 덮어쓰고 그대로 투영된다. 통상 남자답다라는 말로 미화(?)되는 일방적인 의사표현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못 남성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고, 강한 사랑을 내포한 진심이라 간주되어 여성의 마음을 끈다는 환상 또한 존재해왔다. 여성의 'NO'를 'YES'라고 듣는 사오정 놀이의 귀재들, 그리하여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만화를 통해 자신의 각본을 완성해 간다.

그와 그녀 사이에 일어난 일이 강간이 아니라 섹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도 없이 대기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뭐 성폭력이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가해자를 안심시키기 바쁘다. 그가 안하무인인 것은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고, 힘으로 누르는 이유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여자는 원래 내숭이어서고, 티프가이의 진실된 사랑은 항상 통할 것이다. 맘소사! 언제까지 이 짓을 되풀이해야 하는거냐!

환상은 이제 끝내자. 넘쳐흐르는 남성성으로 과대포장된 티프가이들에게 매료되기보다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젠 바뀔 법도 한 일 아닌가? 당신들이 정말 사랑을 보이고 싶은 거라면, 매력적인 인물을 그리고 싶은 거라면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우린 더 이상 티프가이를 봐줄 수 없다.





여성공간 이야기

전현경 (연대 사회학과 대학원/문화기획단 '고마'
여성공간에서는 '팬싸'로 불리운다.

(아버지가 준 이름보다는 여자들이 만들어 준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다.)

'자..자기소개 합시다.'

'안녕하세요? 고마에 사는 팬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당황하는 사람들... '이대 앞의 페미니스트 카페인데요. 제가 거기 매일 있거든요.' '아...거기서 일하시나보죠?' '아니요 그냥 거기 매일 가요.'

나는 거의 매일 이대 앞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에 간다. 가서 밥먹고, 차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는 등 내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물론 내가 알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마를 알고 자주 찾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곳이 한국에 몇 안되는 여성공간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카페'라고 하면 맨 처음 사람들은 '남자들은 못가나요?'라고 묻는데, 목욕탕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여성공간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자가 많아서??

- 여성공간의 경험

고마가 여성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에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에게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눈치보지 않고 험클어진 모습으로 낮잠을 즐기라는 의미만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 집에서 딸이라 구박받은 경험, 직장에서 여직원이라 짜증나는 것들, 지하철에서 옆자리 아저씨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불편했던 것들을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며 떠들어 댈수 있다. 여기서는 '그래도 여자가 뭔가 잘못했겠지'나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는 식의 반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평소에 그런 반응을 보이던 친구도 고마에 가면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 옆자리에 들릴 수도 있지만 웬지 그들도 나를 지지해주는 것 같다.(페미니스트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심지어는 사장언니나 옆자리 사람들이 얘기에 끼어 거들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나는 편안하다고 말하고 나의 남자친구들은 '거기 가면 웬지 위축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 여성공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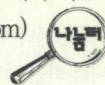
- 여성공간 만들기

이렇게 고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보면 많은 공간들이 여성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통의 카페나 술집에서 여자들이 크게 수다를 떨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 않나, 담배를 핀다고 와서 따귀를 때리고 가지 않나, 옷가게는 살찐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하지 않나, 극장에는 창녀의 벗을 몸을 보려고 군인과 늑다리 아저씨들이 줄을 늘어서지 않나, 약간만 인적이 드물다 싶으면 노출증 환자 와 강간범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심지어 떠오르는 싸이버 공간도 채팅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게시판들은 남자들의 폭력적인 말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나, 여하튼 말을 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창조적으로 즐겁게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이런 저런 일들에 불쾌해 하기에 도 벅찬 하루하루가 아닌가!!!

요즘은 친구들과 또 다른 여성공간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대 앞 거리가 9시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성밴드의 공연과 여성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이대 앞 옷가게들이 좀 더 상식적인 사이즈의 옷을 팔고, 환복과 교환이 자유롭게 되는 것. 여성주의 서점이 생기고, 카페와 술집이 좀 더 여성친화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들이다. 더불어 싸이버 공간에서도 남성중심적 싸이버 문화를 개선하려는 '씨스터 뽀드(<http://sisterbond.jinbo.net>)'라는 모임도 생겼다.

나는 작은 여성공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많은 공간들이 여성들을 위축시키거나 주눅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공간 갖기를 권하고 싶다. 여성모임이나 수다모임, 통신동호회도 좋다. 그 경험은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삶의 공간을 판단하는 식견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순간 우리 안에 있는 더 많은 에너지와 창조력, 건강함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주장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내가 아는 여성공간, 모임을 분양하려고 한다. indisee@dreamwiz.com)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연림터 집단상담

연림터는 매년 하계, 동계방학에 즈음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00년 동계 집단상담을 2월 22일~25일 동안 경기도에 있는 콘도미니움에서 진행, 현 내담자와 퇴소한 내담자를 포함하여 11명이 참여하였다. 집단상담의 일정은 크게 본 집단상담과 성교육, MBTI검사와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상담전문가가 진행한 집단상담은 5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내담자들의 피해노출로 시작하여 매 회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장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이번 집단상담에서는 성폭력가해자들의 유형과 특성을 분류하여 보는 작업도 하였다. 집단상담 후 2세션으로 진행된 성교육에서는 드라마를 분석하면서 드라마 속에 나타난 사랑과 현실의 사랑,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랑의 형태들을 토론하여 내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성평등지수를 기초로 가정내 자신이 경험해 온 위치와 자신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분담과 선택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또한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내담자들은 썰매를 탄다거나 늦은 저녁까지 모여 앉아 게임과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간의 자매애와 사랑을 다져가는 시간을 가졌다.

제 14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2.14~25까지 진행. 총 66명 수료. 2주간의 실습, 참관교육후 14명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교육은 9월 예정.

연구소 - 시설성교육



육아시설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 그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육아시설 아동의 성교육 프로젝트를 시행. 우선 두 곳의 시설을 선정하여 각 대상별로(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8주의 성교육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캠프를 통해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하고 두 시설에서의 성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들이 시설에서 직접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

우선 시설에서의 성교육을 진행하는 준비단계로 교사들이 모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사워크숍, 자원활동가 훈련을 실시하였다. 육아시설의 대상으로는 서울의 영락 보린원과 수원외의 효행원이 선정되었다. 영락보린원은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8주 동안 총 79명의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았고, 효행원은 5월 8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어 7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관련기사 - 본지 6면)

- 장애인성폭력관련 간담회

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올 한해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부모,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진행된 지난 3월 10일 간담에서는 장애인 성교육의 현황 및 성폭력 피해 실태, 특화된 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워크숍

5월 17일.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 토론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탄생, 성역할, 사춘기, 성폭력, 성인준비의 다섯영역으로 나뉘어 개발중이고 한선희(광진학교), 박효경(밀알학교), 김애란(동천학교), 김혜진(다니엘학교), 김재영(한국구화학교) 교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날 평가된 내용은 프로그램 수정, 보완에 반영될 것이고 이후 2, 3차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이 확정될 예정이다.



KBS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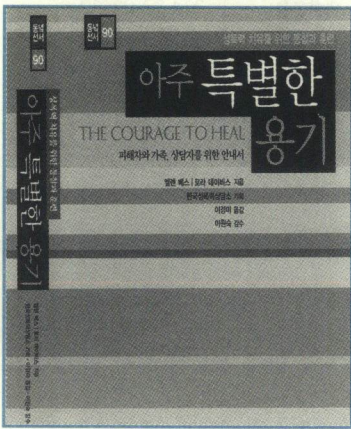
본 상담소 미디어운동센터에는 4월 16일 방영된 KBS 1TV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TV속으로' 코너에 드라마<여비서>에 대한 모니터 내용 기획, 구성하여 모니터 회원 하영란씨와 작가 김신명숙씨가 함께 출연하였다. 대기업 전문직 여비서 5명을 중심으로 전문 직장인드라마를 표방하는 이 드라마의 여성인물 분석을 통해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거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판하였다. (관련기사-본지 7면)

나눔터 기사판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성폭력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
- "이주 특별한 용기" 발간(2000.2)

The Courage to Heal (엘렌베스/로라 데이비스 著)의 번역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 이경미 옮김 · 동녘출판



어릴 때 성폭력피해를 당한 모든 여성과 그들을 염려하고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총체적이면서도 영감에 차있는 지침서로 치유를 위한 실천적 제안들, 치유과정에 이르는 지표표를 제시하며 생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치

유과정에 이르는 감동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나은, 국제부인회, 던킨도너츠, 박민정, 심창교, 오세민, 유한킴벌리, 이덕연, 이희숙, 장윤정, 조중신, 최영애, 한은희, 홍기선

새로운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나은, 구민지, 권혁권, 김영서, 김옥선, 김윤경, 김은정, 김정수, 김하연, 김혜옥, 노순희, 박선희, 박하연, 송은숙, 신은주, 심수희, 양영주, 우안녕, 원혜정, 윤지원, 이백수, 이상은, 이에란, 정남운, 정재희, 주명희, 지인순, 최보원, 최용득, 한상희, 한완수, 한혜선

1월부터 3월까지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강명자, 고순례, 김강자, 김미경, 김미숙, 김연정, 김윤경, 김정희, 김종구, 김주필, 김준호, 김지혜, 김진숙, 김현란, 김현식, 노미순, 노주희,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응기, 박귀자, 박미숙, 박윤숙, 박정화, 박희경, 백명자, 백정선, 변인희, 변혜정, 서민자, 신은주, 심창교, 안홍례,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정현, 오현숙, 오희옥, 유자인, 윤용미, 윤정숙, 윤지희, 이경로, 이경룡, 이경애, 이금형, 이명선, 이소진, 이순례, 이연실, 이영분, 이원숙, 이윤상, 이은심, 이은정, 이효숙, 이희숙, 임순영, 임종은, 장연집, 장영복, 장윤경, 장철우, 정성광, 정옥분, 정유석, 정진옥, 조중신, 최동석, 최미영, 최선열, 최영애, 최정복, 최지녀, 한은희, 허라금, 홍승아, 홍은정

1월부터 3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고선경, 박은하, 구길자, 금철영, 김경희, 김도희, 김미경, 김미영, 김순형, 김영애, 김일륜, 김정순, 김춘란, 김현정, 김혜숙, 김화영, 도경숙, 두정학, 박경원, 박근숙, 박미향, 박순주, 박인옥, 박진숙, 배은경, 서천석, 설연자, 송성애, 송인희, 신진경, 오남주, 오은화, 우경아, 유숙영, 이상근, 이석민, 이선순, 이선아, 이선영, 이영애, 이윤미, 이은정, 이재인, 이정선, 이정아, 이푸른매, 임자영, 전경림, 전범용, 전승완, 정경란, 정경래, 정교화, 조소연, 조장자, 주서현, 차재순, 최말순, 최옥경, 최유정

상담소 가족들을 위한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합니다.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면 e-mail로 상담소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수도도 될 수 있고, 재미있는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자신의 소식을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애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름, 소속(상담소), e-mail 주소를 적어 ksvrc@chollian.net로 보내주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백명자 간사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김언정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립터 : (02)529-4271~2, 위기상담 : (02)573-1888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 과 '차매에'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이사 강학중·김삼화·문해란·박찬운·이명숙·이상엽·이은미·천병태·최영애·최보원·최은순·홍순기 **●감사** 회계사/배자하·세무사/차재능 **●지문위원** 교육/교사/김성애·이순열/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기독교윤리학/김희은·문화인류학/정병호/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저널리스트/박미라/윤리교사/백영애/청소년교육/이규미/프리랜서/여단영 **●법률** 법학/한인섭/변호사/강기원·고순례·김삼화·김의창·남성렬·박성호·박찬운·안미영·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경호·장철우·정성광·정연순·최은순·최현희/경찰/김강자·이금형 **●상담** 인/간재활학/김종인/경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목회상담가/이재훈/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정연옥/심리학/김순진·김정규·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진·장담운·채규만/사회학/장영복/사회복지학/이영분·한인영·현혜순/상담심리학/권혜수 **●의료** 가정의학/김중구·정영숙/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석·황적준/비뇨기과/이유식/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금자·박종민·손인숙·윤경·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정경원·조삼현·조정현·최보원·홍순기/성형외과/정영태/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외과/오세민·주수호/예방의학/이용호/임상병리학/강정숙·문해란/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박수용·박진생·신의진·양정순·이나미·이수경·전지홍·조맹재·최진숙/치과/이상엽/한의학/강명자·김영선·김효진·서은미·이은미·천병태 **●재정** 의사/민병진/회계사/배자하·임종은/대한적십자사지문위원/윤장순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응숙·최선열/언론인/전여옥/여성학/박해란·오숙희/연극/김지숙/출판/강학중·권혁진·이인자/PD/고학찬/조소/홍성도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지문위원/신문방송학/강남준·강명구·김양희·김훈순·원용진·전석호/기자/백지연/논설위원/지영선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소장/이원숙/사회학/김준호·심영희/여성학/김은일·변혜정·이계경·장필화·조주현·허라균/철학/이상화·정대현/심리상담가/권진숙/아동복지학/정화정/통계학/이용재/영문학/강경화/청소년연구원/김옥순/법학/김진숙·김엘림·신용자/사회심리학/김혜원/사학/박진숙 **●소장** 최영애